의안 제 21 호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에 관한 건

관동교구 전교회 · 전도소에있어서 오랫동안 과제로 되어왔던 관동교구 "일본기독교단 죄책 고백 문 '을 교구로서 고백한다. 그리고 교구내 전교회,전도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우리의 일본기독교단은 제 2 차대전의 1941 년 6 월 '종교 단체법 "의 근거하여 30 여파의 복음주의교회의 연합에 의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합동은 일찍부터 일본 교회의 소원이었지만, 이 합동은 당시 국가의 종교 통제에 의한 것이며, 교회적인 기도와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유지했지만, 교단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하고, 전쟁에 협력하는 수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패전 후 교단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했지만, 전후 부흥의 길을 서두른 나머지, 과거 청산이 소홀히 되어, 경시되었습니다.

전후 22 년이 지난 1967 년 3 월, 교단은 '제 2 차 세계 대전 하의 일본 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한 고백'을, 스즈키 마사히사 의장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했습니다. 이 "전쟁 책임 고백 '은 아시아 교회와 화해의 길을 열고 패전에의해 분단된 오키나와 그리스도 교단과의 합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죄책은 전쟁책임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자세 전반에 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체를 걸고 참회 고백해야합니다.
우리는 일본 기독교단에 속하는 "가지"로서 교단이 범한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 고백하고, 함께 내일의 교구· 교단의 형성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1) 우리들은 성경에 증거된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서 고백하는 신앙에 서있으면서, 천황를 신으로하는 국가 체제를 용인하고, 천황께 경배, 신사 참배를 하는 등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할 예배에, 기미가요 제창, 황거 요배 등을 '국민 의례'로 받아 들여서 "우상 숭배"를 조선 · 한국 · 대만 · 중국 등 아시아 전교회 및 재일 아시아 이웃에 대해서도 강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2) 우리들은 하늘에 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황제 국가의 신민임을 자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 천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을 우선 시켰습니다. 그 결과,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를 아시아까지 넓히려는 국책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 것처럼 간주,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3)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이웃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배우면서, '적'을 미워하고 황군의 승리를 위해 기도, 군용기 헌납 등 전쟁에 협력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이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점령지에 교사 (목사) 를 파견하고 군부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흘린 많은 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참회 고백합니다.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사람 한사람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단에 속한 구 6 부 9 부 교회가 국가에서 탄압을 받았을 때, 이를 돌보지 않고, 목회자 직을 박탈하고, 교회의 해산 처분을 묵

인했습니다. 또한 전후 24 년, 한때 교단의 일부였던 오키나와의 교회를 미군 통치로 방치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1969 년 교단은 오키나와 그리스도 교단과 합동했지만, 오키나와 전쟁의 상처와 미군 기지 하에서 신음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주님의 몸 '에 속하는 다른 부분의 통증에 대해 무감각했던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범한 죄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일본 기독교단이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이 나라와 세계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함께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안 취지

관동 교구는 "일본 기독교단과 오키나와 그리스도교단의 연합의 재조명 및 실질화 '라는 교단의 과제 속에서, 합동 의정서 전문의"균열을 극복하는 "길을 구하여, 1999 년 개최 제 49 회 교구 총회에서 일본 기독교단의 죄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역사 검증에 착수할 것을 결의 하고,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검토" 특설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후에 특설위원회는 3 기 5 년에 걸쳐, 역사 검증을 거듭해 2004 년에 개최한 제 54 회 교구 총회에서 "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연구와 작성 검토를 목적으로서 "일본 기독교 단 죄책 고백 "작성 검토 특설위원회의 설치가 가결 통과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 검증의 결과를 교구내에서 공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료집 "죄책을 고백하는 교회 – 진정한 연합 교회를 향하여"를 발표했다 （2006 년 5 월）.

이 두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관동 교구는 죄책 고백이 오키나와 그리스도 교단과의 "균열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죄책 고백은 일본 기독교단에서도 교단의 교회론, 교단의 음수 역사의 극복, 교단의 일치, 진정한 연합 교회 형성을 위해 피할 수없는 고백임을 알게되었다. 또 일본 기독교단의 신앙고백을 고백함에있어서 죄책 고백을 하지 않고서 고백한다는 것은 역사 검증을 거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성실하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에 관하여는 제 50 회 교구 총회 이후 특설위원회보고로 그 내용을 의안보고서에 기록하고, 그때마다 승인을 받고있다. 그리고 회의를 거듭함을 통해, 장래 일본 기독교단이 스스로의 주체성의 근거하에 죄책을 고백하는 교단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먼저 관동 교구에서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문" 을 고백하고, 교구내 전교회·전도소가 함께하는 고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원하는 것에 이르렀다.

2010 년 개최 제 60 회 교구 총회에서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에 관한 건 （제안자 상치위원회）가 제안되었다. 그 내용은 "1. 관동 교구 전교회・전도소에 있어서 오랫동안 교구의 과제로 해왔다 관동 교구"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문 "및 관동 교구"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예배식문"을 교구에서 공유하고 고백으로 하는 것의 승인을 요구한다. 2. 관동 교구 전교회, 전도소에 있어서 평화주일 등으로 매년 1 회는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문 '혹은 관동 교구"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예배식" 을 고백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라는 것이었다. 이 의안은 11 년에 걸친 위원회 활동이 하나의 의안이 되어 제 60 회 교구 총회에서 상치위원회가 제안자가 되고 회의장에 제안되었다. 그러나 협의의 결과, 이 의안은 처음으로 교구 총회에 제안 된 의안이기 때문에, 전교회・전도소에서도 더 협의가 깊어지고자 하는 소원을 받아 계속 심의가 되었다. 그리고 교구 상치위원회는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교회·전도소의 협의가 깊어지기를 바라고 자료를 작성하여 각 교회의 예배 참석자에서 인쇄하고 배포했다.

그리고 2011 년 개최 제 61 회 교구 총회에서 협의되었지만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추가 검토를 추가한다는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 상치위원회 회부되었다. 2012 년 개최 제 62 회 교구 총회에서는 죄책 고백에 관해서는 의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위원회 보고로 협의를 거듭했다.

교구 총회에서 협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것은 예를 들어 고백 문을 보다 간결하고 짧게, 어려운 역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의 요망과 의견이었다. 또한 교구가 죄책을 고백하는 것의 의미와 각 교회에 대한 구속성에 대한 우려 등도 나왔다. 이에 대해 61 총회 62 총회에 있어서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세번에 걸려 협의했다.
그리고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Q & A"를 작성하고, 더 컴팩트 한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문 '을 만들어 각 교회・전도소에 배포, 의견, 요망을 요구하는 동시에 설문 조사를 했다. 또한 역사적 용어에 관해서는 대체 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항이 불명확한 추상적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간략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교단 죄책 고백 용어해설"가 있고 자료집으로 "죄책을 고백하는 교회 - 진정한 연합 교회를 향하여"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각 교회・전도소에 있어서도 평화주일 등에서 년 1 회는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문 '혹은 이를 기반으로하는 관동 교구"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문 리타니"을 가진 것을 목표로하고 바란다. 그러면서 자료집 'Q & A'등의 공부를 통해 학습, 이해를 더하며, 장래에는 일본 기독교단이 이러한 죄책을 고백하는 교단이 될 것을 지향하고 싶다고 바라는 것이다.
이상의 작업을 거쳐 상치위원회는 금번회의에 "관동 교구의 고백 '으로 상기 의안을 제안한다.
신앙 고백의 주체가 교회 (교단) 인 것과 같이, 죄책 고백의 주체도 교회에 있다. 과거의 교회 (교단)의 죄책을 고백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빚으로서 후대의 교회 (신앙 공동체・교단) 가 넘겨받을 책임이 될 것이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책 고백은 과거의 죄에 대한 참회 고백과 함께, 미래에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결의 표명이기도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나,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로 죄책 고백을하는 것이 두가지 의의를 가지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 의안 통해 신앙적 결단으로서의 죄책 고백과 주님의 용서로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받길 바란다.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제안에 이르기까지 경과】

・1998 년 제 48 회 관동 교구 총회에서 "일본 그리스도 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가결.
・1999 년제 49 회 관동 교구 총회에서 "오키나와의 교회에 대한 사죄 표명"을 상치위원회가 보고하는 것을 승인했다.
・1999 년 제 49 회 총회에서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검토"특설위원회를 설치.
・2004 년 제 54 회 교구 총회에서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 작성 검토위원회를 설치.
・2006 년 5 월 1 일 자료집 "죄책을 고백하는 교회 - 진정한 연합 교회를 목표로 향하여"를 발표했다.
・2010년 제 60 회 관동 교구 회의에, 관동 교구 "일본 기독교단 죄책 고백"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제안. 계속 심의된다.
・2011 년 제 61 회 관동 교구 회의에 다시 제안되어. 상치위원회 회부된다.
・2012 년 제 62 회 관동 교구 총회에서 "죄책 고백 Q & A"를 첨부함.